

구의원 비위 의혹 수사 무려 10개월째... 의지 없는 경찰

광주 경찰, 백순선 북구의원 수의계약 혐의 수사 미적 검찰 보완 요청 한 달 만에 의회·북구청 녹장 압수수색 수사력 부재 '빈축'...정치권 연루 눈치보기 의혹도

광주경찰이 북구의회 기초의원 수의계약 비위 의혹과 관련 북구의회와 북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10여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라는 점에서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송치된 기초의원 외에 일부 기초의원을 유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송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애초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형 비리 컨넥션이나 중범죄가 아닌 기초의원들의 고질적인 단순 비위 사건을 10개월이나 수사하고도, 의원은 단 한명만 송치했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북구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과 북구청 회계과 등에 2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2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공

무원들이 근무한 회계과와 전문위원실의 서랍 등을 뒤지고, 메신저 내용과 메모 등을 조사한 뒤 휴대전화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지난 3월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백순선(나 선거구·무소속)의원 부부와 공무원 8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한 보강 수사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백 의원이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의 인쇄·판촉물 제작 업체를 통해 모두 11건(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북구청과 체결한 것과 관련 백 의원과 배우자, 공직자 8명 등 총 10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당시(지난해 6월-10월) 경찰은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수사를 위한 자료로 ▲북구의회 의원 입찰 및 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신고 자료 ▲백의원

윤리위원회 회부내용자료 ▲백의원 수의계약 입찰 예약서 등을 요청해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달여가 지난 4월 초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수사에 들어가 반 년 만에 송치해놓고도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온 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해당 실과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력 부재와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임에도 반 년 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 정치권이 연루되면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

유다. 이는 백 의원 이외에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다른 북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게 경찰측의 설명이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늦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북구 비위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은 백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를 한 것인데, 백의원 이외의 수사 진행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경찰이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7일 밤 12시, 옛 도청 '영화를 품는다'

5·18 자정영화제 임흥순 다큐 '좋은 빛, 좋은 공기' 상영...신청자 모집

5월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자정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자정영화제가 열린다. 24일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5월 27일 밤 12시 (28일로 가는 새벽)에 열리는 자정영화제 "5·18 사적지, 영화를 품다"의 사전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영화제는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항쟁의 밤을 영화와 함께 기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도청정문 앞에 세워지는 스크린에서 임흥순 감독의 다큐멘터리인 '좋은 빛, 좋은 공기' (110분 가량)가 상영된다. 이날 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한 5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신청은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 영화는 1980년 5월 18일 좋은 빛(광세, Good Light)이라는 뜻을 가진 '광주'의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무고한 희생을 당한 사건과 1977년 4월 30일 좋은 공기(Buenos Aires, Good Air)

라는 뜻을 가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민 3만여 명이 실종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지구 반대편인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어머니들이 교차되면서 국가 폭력의 기억은 이제 시대를 넘어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돼 추모와 애도의 현재적 의미를 다지고, 나아가 더 좋은 빛과 더 좋은 공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27일 밤 11시 40분부터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사회로 시작되며, 상영이 끝난 뒤 참석 소감 나누기 등의 행사도 곁들여진다. 이번 행사는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주관하고 '광주여성영화제', '문화콘텐츠 그룹 잇다'가 협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분적산 편백숲 걸으며 암 이겨내세요

광주 남구, 26~27일 암 희망드림 아카데미 진행

광주 남구가 집에서 생활하는 암환자와 가족들이 분적산 편백숲에서 암 극복 의지를 다지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6일·27일 양일간에 걸쳐 분적산 편백숲에서 '제2회 암 희망드림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연으로 떠나는 숲 체험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각각의 환자 및 가족간 정보 교류를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서적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정에서 암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 20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분적산 편백숲을 걸으며 그동안 쌓여왔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털어내고, 정자에 앉아 디퓨저를 만들면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제가 암 환자와 가족 구성원들이 암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암 희망드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상생활의 동기 부여 및 활력 증진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 광경 언제나 끝날까 24일 오전 장성군 황룡면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2017년 35%서 2020년 2%로 '뚝'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이월률 최소화

광주교육청 효율적 예산집행 성과

광주교육청이 2020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이월률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성과를 내고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의 지난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이월률은 2%(7억원)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학생학습권 보장과 학사 일정에 맞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고려해야만 하는 시설사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매년 과다한 이월이 반복돼 왔다. 최근 3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액대비 이월률은 2017년 35%(199억원), 2018년 12%(61억원), 2019년 20%(131억원)에 달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회 추경예산부터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사 일정 조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석면·내진 공사비(127억원)를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 향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다. 2월 말까지인 학교회계의 특수성을 활용, 고등학교 대상 3억원 미만 시설공사의 경우 겨울방학 공사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시설사업비를 학교회계로 전출하고, 학교시설공사 계약사무 위탁사업을 통해 이월비를 줄였다. 광남기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학교시설 사업은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변화면서 시설사업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광새마을금고 창립 40주년 정기예탁금특판

1년 2.0% (200억한도)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